

### 영암 출신 유해란, LPGA투어 Q-시리즈 수석 합격

# “내년엔 신인왕”



지난 10일 진행된 2022 LPGA 웨일파잉 시리즈 6라운드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유해란. 작은 사진은 12일 LPGA 몰리 마르쿠스 사마한 커미셔너에게 투어 카드를 전달 받고 포즈를 취한 유해란. /AFP-연합뉴스

## 한국 선수 7번째...내년 LPGA 풀시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 기대 된다”

영암 출신 유해란(21)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웨일파잉 시리즈 1위로 내년 LPGA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유해란은 12일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일랜드 오크스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2022 LPGA 웨일파잉 시리즈 대회 최종 8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29언더파 545타로 1위를 차지했다. 1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상위 20명은 내년 LPGA투어 출전권을 받는다. 21~45위까지는 LPGA 투어 조건부 출전권과 2부 투어인 엡슨 투어 출전권

을 받고, 46위 이하는 LPGA 2부 엡슨 투어에서 뛰게 된다. 20위 안에 들어도 순위에 따라 출전할 수 있는 대회 수가 달라진다. 1위는 거의 모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한국 선수가 LPGA 웨일파잉 시리즈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작년 안나린(26)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박세리, 최혜정, 김인경, 송아리, 그리고 2018년 이정은(26)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7번째 수석 합격이다. 사실상 전 경기 출전권을 손에 넣은 유해란은 내년 LPGA투어에서 가장 유

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유해란은 국가대표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을 땀고, 한국여자프로골프(LPGA) 2부투어에서 뒤편 2019년 초청 선수로 출전한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 이듬해 KLPGA투어에 입성했다. 신인 때인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상급랭킹 2위에 올라 신인왕을 꺾은 유해란은 2년 차이던 2021년에는 2승을 올렸다. 2022시즌에도 1승을 보태 상급랭킹 4위를 차지하며 KLPGA투어에서 정상급 기량을 뽐냈다. 유해란은 “1위로 세계 최고의 투어에 합류한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한국 선수로서 2년 연속 우승도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빨리 LPGA투어 카드를 받게 될 수 있을지 몰랐다. 아직도 내가 LPGA투어에서 뛰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해란은 특히 “아마도 실감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같이 플레이하는 것이 기대된다”라며 “내년 투어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퍼팅을 좀 더 연습해야 할 것 같다”고 다짐했다. 한국에서 화려한 신인 시즌을 보냈던 유해란은 “KLPGA투어 루키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루키가 됐다는 점이 새롭다”면서 “한국 골프 코스가 미국보다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정확한 샷 정확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메시 對 모드리치



14일 월드컵 결승 길목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메시(오른쪽)와 모드리치. /AFP-연합뉴스

### 생애 마지막 월드컵 우승 트로피 놓고 운명의맞대결



FIFA WORLD CUP Qatar 2022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파리 생제르맹)와 ‘최고의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37·크로아티아·레알 마드리드)가 생애 마지막 꿈인 ‘월드컵 우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운명의 맞대결을 펼친다.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는 14일 오전 4시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두 팀은 메시와 모드리치라는 걸출한 베테랑이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 축구 선수로서 완갑인 30대 중반인 이들에게 이번 대회가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점도 같다. 더불어 나란히 월드컵 무대에서 ‘준우승·골든볼’의 경력을 가진 것도 똑같다. 역대 최고의 골잡이로 손꼽히는 메시는 19세이던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이번까지 5번의 월드컵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전했다. 그러나 우승은 못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친 게 메시가 있는 동안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다. 메시는 2014년 브라질 대회 때 4골 1도움의 활약을 펼쳐 대회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마지막 막으로 우승한 것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다. 당시 디에고 마라도나가 우승에 앞장섰다. 2021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일궈 ‘메이저 대회 무관’ 징크스를 끝낸 메시가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낸다면 진정 마라도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모드리치는 역대 최고의 중원 조율사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모드리치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의 준우승 돌풍을 지휘한 공로로 2골 1도움의 기록에도 골든볼까지 차지했다. 그리고 그해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외의 선수가 발롱도르를 받은 것은 모드리치가 유일하다. 러시아 대회 때 모드리치는 33세였다. 당시 러시아 대회가 모드리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리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모드리치는 4년 전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치며 우승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메시와 모드리치는 프로 공성전과 A매치에서 총 25차례 맞붙었다. 모드리치가 몸담은 팀이 11승 5무 9패로 상대 전적에서 앞선다. A매치에서는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딱 한 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크로아티아가 3-0 완승을 했다. /연합뉴스

## ‘16강 영웅’ 손흥민 “다음 질주는 EPL”

### 오늘 출국...26일 브렌트퍼드와 원정 경기로 하반기 일정 소화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달성에 앞장선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로 복귀해 ‘우승 도전’을 이어간다. 손흥민은 13일 영국으로 출국,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에 합류할 준비를 한다. 초겨울 한국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손흥민의 소속팀 첫 공식 경기 일정은 ‘박싱데이’인 26일 오후 9시30분(이하 한국시간) kick오프하는 브렌트퍼드와 EPL 17라운드 원정 경기다. 그전에 22일 오전 4시 홈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니스(프랑스)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전까지 약 보름 동안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안면 보호 마스크를 끼고 월드컵 4경기를 소화했지만, 손흥민의 부상 부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부상 여파로 저하한 컨디션은 문제다.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에이스다운 실력을 보여줬으나, 특유의 스피드를 살리지는 못했다. 몸이 무거워 보였다. 최대한 빠르게 몸을 끌어올려야 주전 자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폭발하며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도움은 7개를 곁들였다. 올해는 3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면서 경기 일정은 매우 빡빡해졌다. EPL뿐 아니라 16강에 올라있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경기까지, 토트넘은 거의 일주일마다 두 경기로 실질을 소화해야 한다. 게다가 손흥민은 내년 3월 A매치(20~28일·2경기 가능) 등 대표팀 일정을 위해 또다시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손흥민의 올 하반기 득점 페이스와 몸 상태 등을 고려하면 지난 시즌을 넘어서는 득점 기록을 올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팬들은 손흥민이 부상 없이 무난하게 살인적인 하반기 일정을 소화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 성료

제10회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가 지난 10일 광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광주시합기도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선수 500명과 임원·지도자 100명, 동호인·관객 2천여명이 함께 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 선수들은 대련(남·녀 각 6부 15종, 2종별), 발차기(남·녀 각 6부 2종별), 낙법(남·녀 각 9부 2종별), 등 4종목에서 그동안 닦은 기량을 겨뤘다. 신진표 광주시합기도협회장은 “코로나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한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가 광주시 합기도 동호인들의 도약, 화합, 축제의 장이 됐다”며 “합기도 종목이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시에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합기도 체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합기도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무예로, 유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합기도협회 소속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열린 제10회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에 참가한 발차기 종목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합기도협회 제공>

## 광주장애인배드민턴 이정수 국가대표 선발전 ‘전승 우승’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정수(전 대사대부고 1학년)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태극마크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이정수는 지난 8-9일 고창군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단식 SU5(지체장애) 부문에 출전해 국내랭킹 2위와 4위 선수들을 모두 2대0으로 꺾었다. 또 천적인 국내랭킹 1위 김기연(서울의료원 소속)을 생애 처음으로 2대1로 제압하며 전승 우승을 이끌었다. 국내 랭킹 3위였던 이정수는 이전 대회 우승으로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리며 2장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수는 초등학교 시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수형,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병상 선수로 출전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중학교 1학년 때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을 접한 이정수는 박상욱 코치의 지도하에 기량이 급성장, 2019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 선수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발되며 ‘제2의 이용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기홍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회장(복숭그룹 총괄사장)은 “광주장애인



2023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단식 SU5(지체장애) 부문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한 이정수.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항상 가슴 아팠다”며 “앞으로 이정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